

여성 베이비부머의 결혼기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 인식

Female Baby Boomers' Perceptions on Resource Transfers to their Children Who Have
Gotton Married or Plan on Getting Married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 연구의 경향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ource transfer process from female baby boomers to their children who have gotten married or plan on getting marri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xplored. (1)To what extent have female baby boomers been transferring their resources to their children supporting marriage or vice versa? (2)What are the opinions of female baby boomers on future resource transfer plans to their children? (3)What are the opinions of female baby boomers on supporting themselves in their old age, and those of their children on supporting their aging pare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female baby boomers who were born between 1955 to 1963. A case study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view resul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economic resource was the most common type of resources that the interviewees transferred to their children. Those who could not transfer their economic resources instead transferred their instrumental resources. Second, it was anticipated that the current trend of interviewees' resource transfers would be similar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ose who used to transfer a large amount of economic resources to their children showed their willingness to do the same in the future. Third, the interviewees did not expect support from their children, but rather were trying to prepare for their old age by themselves.

Based on the overall results, the female baby boomers' transferring economic resources to their children implied that they took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 This appears to stem more

* 주저자: 홍성희(hsh@kmu.ac.kr)

from to altruistic motivation than reciprocal motivation. Moreover, it can be cautiously concluded that female baby boomer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transfer of their resources from male's since the interviewees had different opinions on it from their husbands'.

Key Words : 여성 베이비부머(female baby boomers), 자원이전(resource transfers),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 도구적 자원(instrumental resources)

I. 서론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여성의 출산을 감소와 소자녀화, 핵가족화 등의 변화 추세를 경험하면서 자녀 교육과 투자를 증가시켜온 세대로 가족의 삶에서도 부모 자녀의 관계 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 속에서 여성 베이비부머는 자녀 부양과 관계 유지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어머니로서 남성과 다른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한경혜, 2010). 베이비부머는 가족생활주기 상으로는 중년기의 '빈 등지 시기'에 해당되어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는 한편 이 시기는 가족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곽인숙·홍성희, 2008). 이들의 삶이 전환을 맞게 되는 사건이 자녀의 결혼이다. 자녀의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하고 분가하며 경제적으로 목돈을 지원해주게 된다. 며느리나 사위를 보게 됨으로써 가족구성이 변화되고 관계의 빈도와 질도 변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베이비부머가 자녀 결혼을 전후로 가족 내에서 거치는 변화와 전이과정에 대한 경험에 대해 자원이전의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자녀 결혼기에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는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는지, 보유한 자원에 비해 물질적, 신체적 의존도와 자원요구도가 높아지는 노년기를 앞둔 시점에서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은 자신의 노후계획 및 준비와 어떤 구도로 인식되고 실행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 관심은 거시적, 정책적 차원에서 베이비부머의 집단적 특성과 거시 경제적

영향, 개인의 일생에서 중년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후준비와 자녀세대에 대한 자원이전의 연관성의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 차원의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전망하고(정호성 외, 2010) 그와 관련된 베이비부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들(류애정, 2010; 정경희 외, 2010; 방하남 외, 2010; 정경희, 2012)들이다. 둘째, 중년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연구(백은영, 2011; 김정마·엄기욱, 2014, 박창제, 2014)이다. 이들은 필요한 은퇴자금을 산정하거나 은퇴자금 준비유형, 준비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대비 경제적 준비수준이 낮으며, 준비유형도 국민연금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이다. 정경희 외(2010)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의 결혼비용과 신혼집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성인 자녀에게 자원 제공을 많이 할수록 부모의 노후 경제적 준비도가 낮다는 연구(고은비·계선자, 2018)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며(신승희, 2010), 공적연금 가입율이 감소한다(김정마·엄기욱, 2014)는 결과는 자녀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가 자녀의 결혼에 자원이전을 아끼지 않는 부양의식으로 인해 노후를 위한 자원 준비와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자원이전의 동기 와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모 자녀 간 자원

이전의 동기에 접근한 이론으로 이타주의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자원을 이전한다고 보는 한편 호혜성은 부모의 자원 이전이 언젠가 어떠한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기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동기이론을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에 적용해 여성베이비부머가 결혼한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헌신적 부양의 연속성인가 또는 자녀와 자원을 주고받는 호혜성에 동기를 두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앞두고 있는 가족생활주기의 형성기 또는 출산 양육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며,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다(최희정·남보람, 2016; 이길제·최막중, 2017). 그러므로 여성 베이비부머가 자녀의 결혼과정에서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이전하는 과정은 한 시점에서 완결되기 보다는 몇 년에 걸쳐 지속되거나 증가 또는 변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시간자원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거나 점차 자원이전의 범위가 다양화되는 변화로 인해 부모의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향후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결혼 전 여성 베이비부머가 계획했던 자원이전과 현재 결혼시점에서 자녀에게 제공한 자원이전의 현상과 의미, 그리고 미래 자원이전 의사 및 계획에 이르는 과정을 포착하는 한편 향후 자원이전계획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부양에 대한 베이비부머와 자녀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여성 베이비부머의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의 특성, 즉 자녀세대의 자원요구에 대한 대처방안 또는 자녀부양방식에 나타나는 여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과 상충관계에 있는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과 자원 배분과정을 부분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자원이전이 이루어진 배경과

근원을 탐색함으로써 자원이전의 동기에 대한 일부 이론의 유용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 연구의 경향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이 있다. 이타주의론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시킴으로써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교환이론은 인간을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관계는 파기될 수밖에 없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은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성에 기초한 교환이론은 교환참여자 간 관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 자녀의 생애단계와 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Emerson, 1976,를 최희진·한경혜, 2017에서 재인용)고 보며, 부모 자녀간 자원이전의 동기로 상호호혜성(reciprocity)을 강조한다. 즉, 세대 간 이전은 부모와 자녀의 오랜 관계에서 받아들인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 감정, 경제적 지원 등의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보답의 원리'에 의한 것이며, 부모는 미래에 자녀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다(김혜경, 2013; Silverstein et al., 2002). 경제적 관점의 교환이론이 부모 자녀 간의 즉각적인 교환이나 이전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보는 상호호혜성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Hollstein & Bria, 1998). 부모 자녀 관계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장기적 관계이며,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자원이전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달라지기도 하고 지원되는 자원이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지원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기적 호혜성(short-term reciprocity)이다. Grundy & Read(2005)의 연구 결과 노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자녀가 노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에 단기적 호혜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장기적 호혜성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에 부모의 지원을 받은 자녀가 시간이 흐른 후에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Henretta, et al., 1997; Silverstein et al., 2002).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교환되는 자원의 이전은 양자의 요구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점과 자원의 종류에 따라 장기적 호혜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최희진과 한경혜(2017)의 연구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인 아들이 딸에 비해 과거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았지만, 과거의 경제적 손해가 현재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장기적 호혜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단기적 호혜성이 나타났다. 딸의 경우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은 과거, 그리고 현재 노부모의 지원을 받을 때 더 높았다. 즉,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이 모두 나타났다. 그러나 딸의 경제적 지원 행동은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던 자원은 주로 경제적 자원이었다. 이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대학교육, 결혼, 주택 구매,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 등과 부모의 사후 상속에 이르기까지 장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허경옥·유수현, 2014). 최근에는 부모 자녀 간에 이전되는 자원을 공간자원, 시간자원 등으로 확대시킨 연구(Koh & MacDonald, 2006; 한지수·홍공숙, 2007; 이길제·최막중, 2017)가 활발하다. Koh & MacDonald(2006)는 자원이전의 개념에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호혜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모 자녀 간 자원

이전은 여러 형태의 자원이 동시에 이전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자원을 이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는 20대에서 40대의 기혼여성이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자원과 양육지원, 가사노동 지원을 동시에 받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 결혼기간 5년 이하 집단에서는 부모가 결혼비용을 지원해준 경우 결혼 후에도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 결혼 후에도 확장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느라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송경미(2016), 고은비와 개선자(2018)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에게 자원 제공을 많이 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자녀의 대학교육비, 결혼비용, 손자녀 돌봄과 같은 지출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반면 이여봉(2012)이 분석한 여성 베이비부머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의 관련성은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여성들이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경향도 높았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자녀에 대한 지원과 노후 경제적 준비 모두에 적극적인 것이다.

신혼부부가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직장과의 거리(47.69%), 주거환경(26.69%) 다음으로 부모 집과의 거리(17.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국토교통부, 2014를 이길제·최막중, 2017에서 재인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것은 상호 호혜적 만남이나 연락 및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교환하기에 용이하며(최희정·남보람, 2016), 가까이 사는 부모와 성인자녀는 자주 만나며 손자녀 양육, 가사, 간병과 같은 도구적 지지를 활발히 교환하며(Bucx et al., 2008; 한민아·한경혜, 2004), 자녀가 가사나 손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와 가까이 거주한다는 결과(Seltzer et al., 2013; Zhang et al., 2012)도 보고되었다. 이길제와 최막중(2017)은 부모의 손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동일 시군구 거주 여부

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딸일 때, 맞벌이일 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동일 시군구에 거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의 분가 후 5년까지의 패널자료에서는 맞벌이와 6세 이하 자녀 여부 및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이 여성자녀집단에서 더욱 커졌다. 즉, 분가시점에 비해 육아시기에 세대 간 시간 지원을 위한 거주 근접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가구에 있어 세대 간 시간 이전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원의 유형,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자원이전 행동이 노후준비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의 주제를 다루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원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하거나 실행이 집중되는 자녀결혼기에 있는 여성베이비부머의 자원이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원이전 경험에 대한 자료는 심층면접법으로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의 질문은 자녀의 결혼 전후 자원이전의 양상 및 자원이전과 연관되는 노후부양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자녀의 결혼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녀에게 어떤 자원을, 얼마나 제공했고 또 자녀로부터 받는가? 둘째, 향후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 계획은 어떠한가? 셋째, 노후 부양에 대한 자신과 자녀의 생각은 어떠한가? 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기혼의 성인 자녀를 1명 이상 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베이비부머이다. 자녀의 결혼과 자원이전에 대한 경험이 있

는 다양한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거주지역과 교육수준, 직업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종 선정된 11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서울, 대구, 부산, 청주, 경기도에 거주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대체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경험과 생각, 의견 등을 진술하도록 했으며 진술내용은 녹음하였다. 자녀 두 명을 모두 결혼시킨 1명과 자녀의 결혼기간이 5년 된 대상자 1명은 각각 2회, 나머지 대상자는 1회의 면접을 한 후 추가 질문이 있는 사례는 전화로 질문하였다. 녹음자료는 사례별로 개인적 배경, 자녀의 결혼 전 자원이전계획, 결혼부터 현재까지 자원이전 상황, 향후 자원이전 계획, 자신의 노후부양의 순으로 재구성한 후 사례연구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법은 각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과 주요 주제를 추출하는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공통 주제 및 차이점을 찾는 분석을 거쳐 의미에 대한 해석을 산출하는 연구방법이다(조흥식 외 공역, 2011). 본 연구에서도 각 사례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성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와의 자원이전에 대한 주요 주제를 뽑아내고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한 다음 자원이전에 관련된 현상의 의미와 배경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는 1955년생부터 1961년생까지 분포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 2명, 나머지는 모두 대학 졸업자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다. 이들 중 교사로 재직하다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 1명,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퇴직한 2명, 명예퇴직자 1명, 퇴직예정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교사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다. 남편이 현직에 있는 사례는 5명이며, 그 중 3명은 봉급생활자, 2명은 개인사업자이다. 자녀수는 두 명인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고, 2명을 모두

결혼시킨 사례가 4명, 2명 중 1명은 결혼, 1명은 결혼 예정인 사례가 2명이었다. 자녀가 한 명인 1명을 포함해 7명의 사례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켰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표 1 참조).

〈사례 2〉는 아들이 27세에 결혼하고 유학을 떠났다. 아들은 대학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생활했으므로 그녀는 아들이 서울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마찬가지로 유학생살이 끝나도 ‘넓은 세상에서 살라’며 귀국을 기대하지 않는다. 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화상전화를 하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다. 멀리 있는 만큼 일상에 대한 대화나 교류가 없다. 〈사례 3〉은 결혼 후 지금까지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직장생활과

살림을 병행했다. 새벽부터 아침준비를 하고 퇴근하면서 장을 보고 저녁 식사까지 전담하면서 시부모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다. 남편은 돈벌이가 순탄치 않았으며, 아들의 결혼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원칙적인 사람이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비용을 알아서 지출했다. 〈사례 4〉는 남편이 기업의 해외주재원으로 12년 간 외국생활을 했으며, 10여 년 전 갑자기 큰 병을 얻어 퇴직했다. 이후 그녀는 외국생활의 경험으로 영어학원을 10년 간 운영하다 최근 폐원하고 개인교습을 하고 있다. 자신의 나이가 개인교습을 하기에는 많지만 노후에 자녀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본인	남편	자녀
	출생년도, 교육수준, 결혼 후 취업경험(현직, 전직), 거주지역	출생년도, 은퇴여부	출생연도, 결혼유무, 직업, 자녀수
1	1957, 대졸, 무(개인교습), 서울 및 대구	1954, 재직	딸 : 1985, 기혼, 회사원, 1명 딸 : 1988, 기혼, 회사원, 무
2	1958, 대졸, 무(무), 부산	1954, 재직	아들 : 1983, 기혼, 유학생, 1명 딸 : 1987, 결혼예정, 회사원
3	1956, 대졸, 무(교사 명예퇴직), 서울	1954, 은퇴	아들 : 1984, 기혼, 회사원, 1명 딸 : 1991, 미혼, 회사원
4	1957, 대졸, 개인교습(학원운영), 서울	1954, 은퇴	딸 : 1984, 기혼, 펀드매니저, 1명 아들 : 1985, 미혼, 회사원
5	1958, 대졸, 무(교사), 경기도	1955, 은퇴	아들 : 1986, 기혼, 회사원, 무 딸, 1989, 기혼, 주부, 2명
6	1958, 대졸, 무(교사, 자영업), 서울	1955, 재직	아들 : 1984, 기혼, 회사원, 2명
7	1957, 고졸, 무(무), 서울	1950, 재직	아들 : 1983, 기혼, 회사원, 2명 딸 : 1988, 기혼, 은행원
8	1955, 대졸, 교사(퇴직예정), 서울	1950, 은퇴	아들 : 1983, 기혼, 회사원 딸 : 1987, 기혼, 시간강사, 1명
9	1955, 대졸, 사무직(무), 서울	1952, 은퇴	딸 : 1985, 기혼, 주부, 1명(출산예정1명) 아들 : 1987, 결혼예정, 회사원
10	1955, 고졸, 무(무), 청주	1950, 은퇴	아들 : 1979, 미혼(사제) 딸 : 1981, 기혼, 주부, 2명
11	1961, 대졸, 무(무), 대구	1959, 재직	딸 : 1988, 기혼, 연구원 딸 : 1989, 미혼, 회사원 아들 : 1992, 미혼, 대학원생

례 6)은 외아들이 결혼 때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 아들은 자녀를 연년생으로 두었는데 그녀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씩 손자 돌봄을 도와주고 있다. <사례 7>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생각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먼저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지 않고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금씩 도와준다. 또 명절 때 며느리를 배려해 미리 음식을 준비해놓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어머니로, 평소 며느리가 많은 일을 상의해온다. <사례 9>는 전업주부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빠른 퇴직 후 1년 6개월 간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한 적이 있다. 50대 중반에 시작한 자영업은 평생에 제일 고생한 시기라고 할 만큼 힘들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결혼준비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대신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는 독립적인 의식을 표명해왔다. <사례 10>은 딸이 출산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어 딸의 집에 가서 손자 돌봄을 도와준다. 딸의 집에 며칠 씩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례 11>은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세 자녀를 두었으며, 출생연도가 가장 늦은 후기 베이비부머에 속한다. 그녀는 요즘 미혼인 둘째 딸과 셋째인 아들의 결혼비용으로 걱정이 많다. 동시에 자신이 늙어가고 남편이 은퇴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노후준비도 걱정이 된다.

IV. 결과 및 해석

1. 여성베이비부머와 자녀 간 자원이전에 대한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결혼과 손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 내에서 시어머니 또는 장모, 그리고 할머니의 역할을 맡게 되고, 부모와 조부모로서 아랫세대에 대한 책임감 또는 실질적인 자원이전에 대한 부담이 부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자녀세대의 자원이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

에 대한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여유에서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

<사례 1>은 딸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비용은 물론 손자녀의 육아나 교육비를 보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며, 두 딸의 결혼 후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왔다. 먼저 결혼한 둘째 딸의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집을 사도록 조언하고 목돈을 지원해주었다. 첫째 딸에게는 결혼 당시 곧 회사 사옥이 이전할 예정이라 자신의 집에 임시로 기거하게 하고, 회사 이전 후 전셋집을 구할 때 반 정도를 지원해주었다. 딸은 친정집에 사는 동안 신혼집 전세금을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덕에 강남의 유망한 재건축단지 집 살 수 있었다. 딸의 출산 후에는 장보기 힘든 딸을 위해 식품을 거의 조달해주는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도구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사례 7>은 아들의 신혼집 전세 비용과 최근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또 며느리의 생일에는 ‘너를 위해서 쓰라’며 용돈을 주고, 손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주식을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었다. <사례 2>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있어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의 경제적 지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학을 떠난 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정착비용이나 영주권 신청비용 등을 요청했고, 몇 년 후에는 미국에 살겠다며 집을 살 목돈을 요청했지만 ‘애들이 필요할 때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주었다. <사례 5>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두었던 오피스텔에 결혼 전부터 살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셈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이다. 경제적 여유는 남편의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한다. <사례 1>과 <사례 2>의 남편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은퇴 후에도 연금소득이 있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적다. <사례 7>의 남편은

사업가로 정년의 부담이 없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수 있는 큰 배경이다(사례 1, 2, 7). 부모의 유산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 만큼 더 큰 경제적 여유로 인식되며, 그 목돈으로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신혼집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사례 2) 일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만약에 내가 그 돈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없었다면 아무리 연금이 있다 그래도 아들한테 그만큼은... 못 주지요.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례 1)은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여 자원을 이전해주는 경우로 자신의 지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녀는 ‘과한’ 지원을 ‘애들을 챙기는’ 데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자신의 성향으로 설명한다. (사례 7)은 아들 내외가 전세금을 조달하기 위해 애를 쓰다 ‘지쳐서’ 이사를 포기 하는 결정적 순간에 부족한 만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아들 내외는 기대하지 않았던 부모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포기했던 집에 살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마워했다. 그녀의 지원방식은 자녀들에게 ‘참견’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자신이 정한 ‘선’ 내에서 배려하는 방식이다. (사례 2)는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주는 도움’이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1) (내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과한 건 과한데... 나에 막 치중을 하면 자식들한테 못하는데, 내 성향이 되게 가정적이야, 그래서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는 게 되게 즐거움으로 알고 사는 부분이 있어서 내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거든...

(사례 7) 며느리가 둘째 가졌을 때 차를 사줬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돈(유산)인데, 정말 이 돈은 남편한테도 안주는 돈인데 차를 사라”고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 같아요.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때 차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고. 중요한 순간에 한다는 그런.....게 아마 잘 했던 거 같아요.

2) 내어주는 모성

(사례 6)은 아들의 신혼집을 준비해주기 위해 부부가 살던 집을 줄여서 차액을 지원했다. 그녀의 ‘과용’은 본인들이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도 아들에게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자 한 동기에 바탕을 두었다. 그녀의 남편은 ‘가진 것에 비해 무리’라고 하며 반대했지만 그녀가 계속 설득해 ‘과용’을 감행했다. 현재 그녀는 일하는 며느리를 대신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장을 봐주기도 하고 손자들이 마음이 쓰여 가끔씩 가서 손자와 놀아주고 반찬을 가져다주거나 아이들 간식을 사주는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 8)과 남편은 모두 모태신앙을 가졌으며, 자녀들 또한 종교의 영향인지 ‘부모한테 신세 안 지려는’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딸은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지원해주려던 오천 만원을 사양해 일부만 주었다. 아들도 전세금 1억을 보조했을 때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녀는 딸이 출산한 후 자신의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도록 하고, 매일 퇴근 후 한 두 시간씩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 지금은 사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시간강의를 가능한 많이 하려는 모습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은 ‘짠하다.’ 그녀에게는 딸과 가까이 살면서 ‘틈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딸의 피곤한 모습에 애뜻해 ‘멀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감정이 교차한다.

(사례 6) 혼자(외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출발할 때 밑받침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과용을 했어요...

3) 삶을 재편시키는 도구적 자원이전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여유가 없다는 (사례 4)와 (사례 10)은 육아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딸의 집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사례 4)는 남편과 함께 주중에는 딸의 집에서 손녀딸을 돌보고 주말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다. 그녀는 딸의 집에 가있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손녀를 돌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자신이 연년생 자녀를 쫓기듯이 의무감으로 키운 것 같아 손자녀 한 명은 여유를 가지고 키워줄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 일하고 있어 딸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남편이 흔쾌히 응했다. 중학교까지 미국에서 생활했던 딸은 귀국하면서 미국 대학 진학이 무산되었다. 또 미국 로스쿨에 진학을 원했으나 학비를 낼 여유가 없는 엄마의 입장을 표명하자 포기했다. 딸을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 했기 때문에, 또 딸의 직업특성상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어려운 것도 부모가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례 10)의 딸은 결혼 당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했고 신랑 쪽 부모가 생각보다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딸의 혼수를 거의 생략하고 전세금을 보태주었다. 출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딸의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다. 딸은 출산 후 끝반에 이상이 생겨 오랫동안 고생했을 뿐 아니라 손자도 기침을 달고 살았다. 딸이 친정에 이삼 개월 머물면 좋아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나빠지는 상태가 반복되자 친정 근처로 이사를 권했다. 둘째를 출산한 딸은 후유증이 심해져 그때부터 친정엄마의 손자 돌봄이 계속되었다. 그녀의 집과 딸의 집은 좀 거리가 있어 그녀가

딸네 집에 한 번 가면 3일 정도 머물다 온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딸의 건강문제로 자신의 삶도 딸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우선으로 재편된 셈이다. 딸은 가끔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녀는 회의적이다. (사례 4)와 유사하게 내 집을 두고 딸의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다.

(사례 4) ...항상 딸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 봐주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딸이) 일하는 강도가 높죠. 다른 사람이 봐줄 수가 없어요. 펀드 매니저고, 예전에는 6시 10분, 20분에 (집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돈을 잘 벌잖아요. 개를 그만두게 할 수 없잖아요. 육아휴직하게 할 순 없잖아요.

(사례 10) 개네들 사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개가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또 딸이 아파트를 키워가야 하는데 그걸 힘들어하고, 가끔 그러는 거야. ‘2층집을 지어서 엄마랑 같이 살까?’ ‘글쎄...’ 그러고는 말았는데... 나는 하야튼 때만 되면 얼른 졸업하고 싶어.(웃음) 왜냐하면 개하고 같이 있으면, 엮이면 어쨌든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4) ‘못 보태주는’ 현실과 ‘주고 싶은’ 모성의 갈등

(사례 9)의 남편은 봉급생활자로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전형을 보여준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찍 은퇴한 후 몇 년간 제 2, 제 3의 직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제과기업에서 은퇴하면서 점포를 내는 자영업업을 시작했지만 1년 반 만에 접었다. 그 후로는 형제들의 도움과 집을 줄여서 나오는 월세로 살았다. 그녀는 자녀의 결혼에 ‘하나도 못 보태주며’, 손자녀를 돌봐줄 생각도 없다. 곧 결혼할 아들의 집 문제가 큰 걱정이었으나, 다행히 아들의 직장에서 사

택을 3년 간 제공하므로 지금은 부담이 없다. 그녀는 아들에게 ‘보태줄 돈이 없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집을 장만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사후에라도 집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서 집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이같은 모성은 남편과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그녀에게는 ‘개네 인생’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의 연금을 하고 싶은 일에 쓰는 남편이 이기적으로 보인다.

〈사례 3〉의 아들은 결혼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안에 아들의 신혼집을 얻는데 7천만 원을 보조하고, 며느리의 혼수나 예단도 ‘안 받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못 해준’ 대신 받지 않을 테니 열심히 모으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집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쓸 돈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주려는 강한 모성애를 내보였다.

(사례 3) 전 해외여행도 안 가요. 어.. 이 유는 허리도 별로, 수술을 해서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나이에 굳이 가서 볼 것도 없고,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 그걸로 쓰고 싶지도 않아요. 모아서 우리 아들한테 단돈 천만 원이라도 주고 싶어요... 무슨 때라도 흔쾌히 돈을 줄 수 있는 엄마이고 싶죠...

5) 경제적 지원보다 더 부담스러운 수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사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라는 배려이다. 〈사례 3〉, 〈사례 9〉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지원을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사례 10〉은 외벌이인 사위의 빠른 수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했다. 자녀들은 대체로 부모의 생일이나 어버이날, 명절 때 약 20, 30만 원 정도를 내놓는다(사례 2, 3, 5, 6, 9). 〈사례 3〉은 아들의 경제적, 심

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놓는 돈도 20만원으로 정해두었다.

〈사례 4〉는 딸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고액 연봉을 받는 딸이 엄마의 육아지원에 대한 대가와 개인교습으로 가계를 꾸려가는 엄마의 노고를 헤아려 가끔씩 내놓는 목돈이다. 또 엄마가 아플 때나 손님이 올 때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나 와인을 배달시켜 보내는 세심한 딸이다. 결국 딸은 엄마의 육아지원을 받는 대신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까지 살핀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자원이 전에서 즉각적인 호혜성을 보이는 사례이다. 〈사례 5〉의 딸은 출산 때, 남편의 개업 때 엄마 집에 아이를 길게는 한 달 정도 맡겼다. 그 즈음 부모의 생일이 되자 딸이 전에 비해 많은 돈을 두고 갔다. 그녀는 다음에 사위가 왔을 때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으니 ‘돌려준’ 셈이다. 또 가끔 사위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문해 보내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이 자녀에게 용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받는 것은 불편하다. 또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다. 〈사례 11〉은 딸이 부모에게 좋다는 비타민을 해외직구로 배달시켜주는 마음 씀에 한편으로 미안하다. 자신이 자녀들을 ‘걱정시키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녀들로부터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인 현금 지원, 또는 선물 등을 받을 때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5)... 한 달인가 얘기 봐줬을 때 딸이 봉투를 주는데 두꺼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20만원만 하고 80만원을 다시 줬어요... 우리 엄마도 좀 그랬지만 나는 자식이 돈 주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깐 빨리 그 돈에 이상, 상응 되는 거를 보내지 않으면 불편해요...

6) 내 편인 딸, 든든한 아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결혼 전에 비해 결혼 후

부모를 더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한다. 특히 딸을 둔 사례들은 딸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부부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돈 관리 같은 일상생활을 얘기하거나 고민을 토로할 때 자신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속상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딸이 내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의논 상대로 성장했음을 느낀다(사례 1, 8, 9, 11). <사례 1>은 딸들이 생활전반에 대해 상의해오고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을 보면 자신은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 딸들과 관계의 밀도가 높은 것 같다. 딸들이 엄마를 신뢰하는 것 같으며, 의논해주는 것이 고맙다.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사례에 의하면 아들은 딸에 비해 속 깊은 얘기까지 하지는 못해도 결혼 후 부모를 더 걱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할 때 든든하다(사례 3, 7, 8, 9).

(사례 8) 결혼 전에는 (웃음) 아빠가.. 좀 업하고 무서운 스타일이어서 애들이 가까이 안했는데 결혼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 게... 아빠를 더 생각해요... 딸도 결혼 전에는 지 생각만 하고 대화도 걸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속 얘기도 하고.. 나하고 딸은 너무 의지하는... 아들은 자주 못 만나니까 속 얘기를 깊이 못해도 든든한 건 있어요. (웃음). ‘아빠 칠순이다.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약하고 누구 초대할건지 주관하고 그래서 “아들이 든든하다는 말이 이거구나”...

2. 향후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 계획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자녀들의 결혼 전후 자원이전을 해온 사례 들(1, 2, 7)은 앞으로도 계속 이전할 생각이다. <사례 1>은 손자녀 양육비용이나 성장 후 유학비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사례 7>은 상속세를 염려할 정도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딸 부부가 고액연봉을 받고 있고 시댁이 여유

있지만 딸이 앞으로 집을 사거나 아이를 키울 때 지원해줄 생각이며, 아들한테는 더 많은 재산을 줄 계획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례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세대까지 자원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사례 6>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생각이다. 그녀는 자신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자녀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어주는 성향이라 손자의 입학과 같이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씬씀이를 줄여서라도 줄 것 같다는 것이다. 남편은 아들의 신혼집 지원액을 ‘무리하다고 반대했던 것과 같이 더 이상 아들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자녀와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 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례 6)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후를) 커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들이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저를) 절제시키는 거고. 어... 아들이 너무나 힘들면 일부라도 나는 도와줄 거 같아요. 큰 비용은 아니어도 오백, 천 정도는 줄여서 줄 거 같아요... 넘어가는 게 있어야 그들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존재한다.” 그런 게 암암리에 있는 거 같아요...

<사례 3>도 <사례 6>과 유사하게 자신이 쓸 것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아들에게 보태주려 한다. 그녀 자신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손녀 양육을 해주겠다고 자청했다. 아들 내외가 얘기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도와주자’는 생각에서 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앞으로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생각이다.

위의 사례와 달리 <사례 8>은 아들과 딸이 결혼 할 때 자신의 형편 내에서 지원해주었던 것처럼 향후 경제적 자원이전의 선을 명확하게 결정해놓았다. 아들에게는 결혼 당시 전세금을 지원해주었던 것으로 ‘끝’이고, 딸한테는 아들에 비해 적게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아들만큼 주려 한다. 즉, 노후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지원액의 한계를 정해놓았다. 은퇴 후 손녀딸을 돌봐주는 것이 ‘은퇴계획의 하나’일 정도로 도구적 지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사례 10>도 향후 1년 정도는 지금처럼 손자를 더 돌보려고 하며, 이후에도 딸이 힘들면 며칠 씩 와서 자는 도움을 줄 생각이다. 딸의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딸과 살림, 육아스타일이 달라 부딪히기도 하지만 ‘딸이기 때문에’, ‘딸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

향후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계획 또는 생각은 대체로 현재 자원이전의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례, 또는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내 것을 아껴서 자녀에게 주려는 부양의 식이 강한 사례는 앞으로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려는 의향을 보였다. 도구적 자원도 현재의 방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딸의 집에서 손주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사례 4, 10)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원할 의향이 있으며, 딸 역시 엄마의 돌봄을 기대한다.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사례 11>은 아직 미혼인 두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큰 걱정이다. 걱정의 근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녀의 결혼자금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하나는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감이다. 이는 나이 들어감을 몸으로 느끼는데 비해 남편의 은퇴가 가까워오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대한 걱정이다. 결국 그녀는 향후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과 자신의 노후부양이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되는 문제를 감지한 것이다.

(사례 11) ...점점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걱정되죠. 최근에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권유가 많이 와요. ‘평생 (일을) 안 하다가 ‘나도 할 수 있을까?...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 집 사줄지... 내가 ‘좀 돈 벌러 가 볼까?’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와서 뭘 하겠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느꼈을 때 더 ‘뭔가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알게 모르게 강박감,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3. 여성베이비부머와 자녀의 노후부양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부양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되길 원하며(사례 3, 9), 도움 없이(사례 10, 11), 노후에 ‘알아서 살겠다’고 자녀에게 얘기하며(사례 4, 5),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사례 1, 5, 8). 이들이 생각하는 노후부양방식은 부부가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다가 노환이나 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되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다(사례 1, 2, 8, 10, 11).

<사례 1>은 요양원에 갈 마음을 정했지만 딸들에게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딸들이 아직 부모가 젊고 힘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 7> 역시 부부가 아직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존재라 자녀의 부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자녀 또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것을 걱정하는 정도이지 부양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 사례(사례 4, 8, 9)는 노후부양에 대한 생각과 결정을 자녀들에게 누누이 표명하고 있다. <사례 9>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대신 부모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사례 4>는 지금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지 자녀를 도와 주거나 물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자녀들 ‘스스로’ 독립해야 하며, 부모 또한 ‘자력으로’ 노후를 준비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각각 독립적 삶을 사는 노후부양의식을 갖고 있다. <사례 8>의 아들은 부모부양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는데 비해 딸은 엄마가 연로하면 모시겠다고 한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가끔 ‘노후에 요양원에 가겠다’고 얘기한다. 세 명의 사례로부터 노후부양문제를 향후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과 관련지어 고민하고 결정하였으며,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부담을 주지 않는 대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즉, 이들에게 노후부양은 향후 자녀지원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사례 8)... 딸은 엄마가 연로해서 치매 걸리면 지가 모시겠다고. 오빠한테는 엄마가 구박받을지도 모르니까(웃음)... 뭐 딸은 그래요. 그치만 불편하니까, 요양원에 가야죠... “재산도 너흰 없어” 그런 얘기도 가끔하고 ‘우리 노후엔 요양원 갈 거야. 신세 안 끼쳐’ 생각도 그러고, 실천도 할 계획이고...

연구참여자의 자녀들 또한 대부분 부모의 노후를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표명하지 않았다. <사례 8>의 딸과 <사례 10>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짐작해보면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부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사례 3, 9),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부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례 6>은 남편의 은퇴 후 ‘연금 범위 내에서 살고 부족하면 집을 줄여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쓸’ 계획이라고 아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방식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외아들인 자신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V. 결론

1. 여성베이비부머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원의 유형과 의미

여성베이비부머의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이들이 자원이전에 부여하는 의미와 인식을 도출하였으며, 그 근거가 되는 배경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원의 유형을 경제적 이전 위주로 인식했다. 특히 아들을 둔 사례들은 경제적 자원 중에서도 ‘집’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는 앞으로 자녀들이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저축으로 따라가기 힘든 세태에 대한 우려와 ‘아들 가진 부모가 집을 얻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딸을 둔 부모에게도 집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가장 큰 대상이다. 이처럼 여성 베이비부머에게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은 집을 사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전으로 각인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할 여유가 없거나 최소한도로 도와준 사례들은 결혼비용이나 신혼집을 자녀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사례 4>는 자녀들을 교육시켜주었고 자녀들이 현재 직장도 잘 다니고 있으므로 결혼할 때 ‘해줄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자녀가 결혼과 함께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 사례들도 여유가 있다면 지원해줄 가능성을 내보였다. <사례 10>은 남편이 퇴직 후 시작한 과수농사에서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저축에 손을 대게 되었다. 그녀는 노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으로 노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자녀 스스로 생활을 해결하도록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인식은 ‘돈이 없어서’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녀는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에도 공감한다. 이러한 모호한 인식은 자신도 경제적 여유가 있

다면 지원을 자제하기보다 도와줄 의향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사례나 못 해준 사례들도 여유가 있다면 자원을 이전할 ‘잠재적 지원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의 의미는 부모의 의무, 부모 자녀 간 친륜 등의 자녀부양책임이었다. <사례 1>은 자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경제적 지원을 부모의 책임으로 알았다. 이러한 책임의식은 젊었을 때 친정어머니로부터 집을 물려받았던 경험에 근거한다. 형제들이 모두 물려받은 집으로 재산을 늘렸던 집안 분위기가 공유되었고, 자신도 자녀들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인드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사례 3>은 아들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남달리 강한 배경이 있다.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와 동거한 그녀는 갈등이 심했지만 분가를 하고 싶어도 시부모가 집을 살 때 보낸 돈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돈이 없어서 분가하지 못했던 상황은 평생 한으로 남았다. 아들이 결혼할 때 그녀가 얼마간 보태 오피스텔을 샀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아 아파트로 옮길 시기를 놓친 것은 ‘못 해준’ 자신의 탓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결혼과 그 이후까지 지속되는 부양책임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 전반에는 자신이 청장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또는 받지 못했던 자원이전의 경험이 배경으로 작용하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지 못한 일부 사례는 도구적 자원을 이전하고 있다. 도구적 자원이전의 가장 큰 유형은 손자녀 육아인데, 딸의 집에서 육아를 대신하는 두 사례는 ‘딸이기 때문에’ 엄마가 봐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녀들에게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 역시 부족하며 특히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 육아에 대한 지원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이 육아, 가사노동,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자원이전의 호혜성

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Koh & MacDonald (2006)의 견해에 타당성을 더해준다.

여러 사례에서 도구적 자원이전을 위한 부모 자녀 간 근거리 거주현상이 나타났다. 두 사례(사례 4, 10)는 지속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주중에 딸의 집에 기거하는 ‘동거’에 준하는 근접성을 보였으며, 두 사례(사례 3, 8)는 자녀세대가 부모 근처로 이사를 했거나 할 계획이다. 이들 사례는 육아나 돌봄을 위한 서비스와 시간자원, 공동 거주와 같은 공간자원을 통해 세대 간 자원이 이전될 수 있다는 Cardia & Ng(2003)의 연구, 부모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함으로써 도구적 지지를 교환하기에 용이하다는 최희정과 남보람(2016)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 맞벌이인 딸이 친정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업주부인 딸에 비해 높게 나타난 최연실(2014)의 연구, 6세 이하 자녀들 둔 맞벌이 여성이 부모와 근거리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신혼기 가구에서 세대 간 시간자원 이전이 일어난다는 이길제 외(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다.

2. 여성 베이비부머의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의 성별 특성

여성 베이비부머가 자녀 결혼과 관련하여 자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차이, 여성과 남성의 자녀부양역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사례들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어머니로서 양육과 교육을 주로 담당했으며 자녀 결혼 준비나 결혼 후 지원을 실질적으로 주관했다. 준비과정에서 남편보다는 주변의 정보에 밝아지고 자녀와 소통하다 보면 다소 ‘무리하게’ 신혼집 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녀에게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성이 발동되기도 한다. 남편들과 자녀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아들의 결혼 때 집을 해주지 못했지만 아껴서 집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는 ‘엄마의 마음’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의미를 함축

한다. 그러므로 남성의 자녀부양의식은 자녀가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원론적 생각과 자신의 노후준비를 감안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여성의 자녀부양의식은 부동산 시세와 자녀의 저축여력 등 현실과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자신을 다소 희생할 수 있다는 정서에 기반을 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자녀들에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또 동시에 이전해 온 참여자들은 자원이전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사례 6>은 자녀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손자 두 명을 수시로 돌봐주는 것도 아들부부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감지한다. 딸에게 고기며 생선, 과일을 떨어지지 않게 사 보내는 <사례 1> 역시 ‘주고받는 것’이 관계 설정에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자주 보고 자주 소통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원이전의 관점에서 엄마와 자녀의 의사소통, 정서적 교감이 아버지에 비해 더 잦고 밀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주는가가 자녀관계에 주었던 효과는 지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가감정’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사례 1>은 결혼 후까지 많은 자원을 이전해주었지만 자녀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주었으니까 받는 것도 있어야 돼’라는 생각에 서운하고 껄뚝하기도 하다(사례 1). 또 손자를 돌보는 일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기쁨도 주지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좀 비켜나고 싶은 마음도 든다(사례 6). 그러므로 자원이전이 지속되면서 주는 사람의 자원보유상태나 역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그 변화정도에 따라 향후 자원이전 계획, 나아가 자신의 노후부양의식도 재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3. 여성베이비부머의 자원이전의 동기

베이비부머가 결혼한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녀를 부양해 온 책임과 헌신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자녀와 필요한 자원을 주고받는 호혜성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탐색한 결과 뚜렷한 호혜성을 보인 사례는 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이전하면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는 단기적 호혜성을 보였다. Grundy & Read(2005)의 연구 결과 노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기적 호혜성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딸들에게 자원이전을 아끼지 않았던 것에 비해 딸로부터 ‘받는 것’이 약소할 때 서운하다는 사례의 서운함은 자신이 아끼고 절약해서 해주었으니 자녀들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주는 호혜적 관계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결국 기대했으나 ‘비호혜적인 자원이전’에 대해 실망한 것이므로 이 또한 호혜적 동기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자녀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즉 이타주의에 근거한 자원이전은 여러 사례(사례 3, 5, 6, 8, 10)에서 나타났다.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고 건강하다면 결혼 전후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이전해주고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의 노후 자녀의 부양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모두 노후에 자녀의 부양을 바라지 않는, 노후부양방식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기부양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부모도 걱정하고 자녀도 걱정하면서 내 노후도 걱정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세대가 장기 불황에 취업이 어렵고 ‘먹고 살기도 바쁜’ 세대라는 인식에 대체로 공감을 보였다.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부양 못 하는 것은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양할 상황, 형

편이 안 되기 때문'이며, '부모 세대처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을 사거나 계층 상승을 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자녀 세대로부터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은 자녀로부터 직접 표명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경제적 여유 또는 부모 부양의 도리, 효심과 무관하게 자녀세대에서 '부모 따로 우리 따로'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추측하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자녀의 결혼 전후에 집중되는 자원이전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와 자녀 부양의 이중부담을 감당하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세대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부모 자녀관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자녀부양자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의 경험과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면접대상자를 다양하게 표집하지 못했으며, 또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은 면접대상자인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 또는 유추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앞으로의 변화, 즉 노화, 근로소득의 상실과 재산 감소, 손자녀 양육 도움과 같은 자녀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장기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자녀 또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면 자녀와 부모세대와 다른 부양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자원이전이 일방적 흐름인가 호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가를 근원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과 결과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으나 여성 베이비부머의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의 현상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가용한 자원을 호혜적으로 주고받기 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일방적 이전임이 확인되었다. 생활주기 측면에서 볼 때 자녀는 일과 육아로 시간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안정 또는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여유재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여유시간과 양육경험을 이용해 손자녀 돌봄을 이전하려는 자녀부양책임이 강한 세대 특성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식된 것과 같이 자녀부양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행할 뿐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부양하겠다는 일찌된 목소리를 내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또는 도구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현상으로부터 그들의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이나 특히 육아를 절대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엿본 것은 부수적인 발견이었다. 자녀의 결혼기 및 육아기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결혼 당사자의 과업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초기 및 육아기에 있는 가족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족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사적 영역의 부양에서 직장,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지원하는 부양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추진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12).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자원이전: 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19.
- 2) 고은비·계선자(2018).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1), 23-37.
- 3) 박인숙·홍성희(2008). 남녀직장인의 인적자 원개발이 직무만족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07-120.

- 4) 김정미 · 엄기욱 (2014).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197-221.
- 5) 김혜경(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2), 101-141.
- 6) 류애정(2010). 베이비붐세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방향성 모색: 일본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75-101.
- 7) 박창제(2014). 베이비부머와 전 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3, 309-335.
- 8)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9)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10) 송경미(2016).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이길제 · 최막중(2017). 신혼가구의 주거입지에 나타나는 세대 간 시간 자원의 이전과 성별 효과. 국토계획, 52(2), 21-33.
- 13) 이어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24(1), 31-70.
- 14)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87, 40-49.
- 16) 정호성 · 강성원 · 문외술 · 박준 · 손민중 · 이찬영 · 이은미 · 이민훈 · 박번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 17)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 공역, John W. Creswell저(2011).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학지사.
- 18) 최희정 · 남보람(2016). 기혼자녀와 부모의 특성이 세대 간 거주근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123-141.
- 19) 최희진 · 한경혜(2017).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 · 단기적 호혜성: 아들과 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37(1), 83-102.
- 20) 최연실(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75-89.
- 21) 한경혜(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라이프코스 와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2010년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22) 한민아 · 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23) 한지수 ·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시간 결정요인 :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61-75.
- 24) 허경옥 · 유수현(2014). 부모의 경제자원이전과 상속이 가계경제구조, 재무구조,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Financial
- 25) Bucx, F., van Wel, F., Knijn, T., & Hagendoorn, L.(2008).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the life course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44-156.
- 26) Cardia, E. & Ng, S.(2003). Intergenerational Time Transfers and Childcar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6, 431-454.
- 27) Grundy, E., & Read, S.(2012). Social contacts and receipt of help among older people in England: Are there benefits of having more childr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67(6), 742-754.
- 28) Henretta, J. C., Hill, M. S., Li, W., Soldo, B. J., & Wolf, D. A. (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29) Koh, S., & MacDonald, M. (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30) Seltzer, J. A., Yahirun, J. J., & Bianchi, S. M. (2013). Coresidence and geographic proximity of mothers and adult children in step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5), 1164- 1180.
- 31) Silverstein, M., Conroy, S. J., Wang, H., Giarrusso, R., and Bengtson, V. L. (2002) 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Adult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57B(1), S3-S13.
- 32) Zhang, Y., Engelman, M., & Agree, E. M. (2012). Moving considerations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ent-child residential proximity for older americans. *Research on Aging*, 35(6), 663-687.

- 투 고 일 : 2019년 02월 13일
- 심 사 일 : 2019년 03월 25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5월 01일